

교회의 의미, 역할과 사명

국어로 교회(敎會)는 가르칠 교(敎)와 모임 회(會)를 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교회는 단순한 “모임” 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회는 라틴 말 Ecclesia(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 말 ek-kalein(에크-칼레인) ‘밖으로 부른다’ 에서 나온 것이다. 즉, 밖으로(밖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교회라 한 것이다. 그럼 누가 밖에서 부른 것인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고, 이 모인 백성을 다름 아닌 교회라 부르는 것이다(에페 4,4; 히브 3,1). 즉 교회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공동체)인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교회를 이루고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며 먼저 부르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이다. 자칫 내 결정으로, 내 의지에 따라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는 일반 사교적인 모임과 달리 하느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이에 맞게 응답한 이들의 모임인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한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에페 4,1-3).

현대 가톨릭교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첫 항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모인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교회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각자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통해 다른 이의 모범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그분의 빛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행위를 얼마나 닮으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이며 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각자의 마음 안에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지닌 삶이 된다면, 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인가, 아니면 그 빛을 어두운 함지 속에 넣어 두고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삶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2015년 4월12+19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종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옥 세레나 / 장성석 미카엘 -(건강)/브랜든 존스톤 (키모)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윤중신의 영혼을 위해	장 카타리나	생	허원대 요셉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박재례 마리아
연			생	이복임 마리아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구비아

자	전례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7월 14일(화)	연중 제15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5,640.00 \$ 813.00
7월 15일(수)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오전 7 : 30	교구 원 캠페인 토요 특전	\$ 200.00 \$ -
7월 16일(목)	연중 제15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458.00 \$ 330.00
7월 17일(금)	연중 제15주간 금요일	오후 7: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성모님 촛불)	\$ 79.00 \$ 90.50
7월 18일(토)	연중 제15주간 토요일	오후 7 : 30	성당발전기금 합 계	\$ 1000.00 \$ 8,610.50
7월 19일(일)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	오전 9 : 00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2 1~3월김형일 이호영 1~7월이서향 1~12월이나숙 2~7월박대련 4~5월장대석 4~6월고원석 5~6월김승제 5~8월홍준표 6월신영훈 이은로 6~7월김병일 김평옥 정준자 7월우순이 김채홍 김운태 김옥륜 최이주 박을생 남필례 윤태옥 전정옥 안강순 전기례 허용희 김숙자 백정심 전재순 김병준 장신자 김길록 7~8월 이종만 김순녀 7~9월이정자 정행순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매주 화요일 저녁8시)
- ◆ 문 의: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세례예식

- ◆ 8월 16일(일) 교중미사 중
- ◆ 화요일 교리반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신자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세요.

3. 봉성체(병자 영성체)신청

- ◆ 첫째 주- 신부님/ 셋째 주 - 부제님
-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 ◆ 17일 (금) 환자 봉성체 있습니다.

4.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 ◆ 7월 30일 (목) 시작됩니다. 예비신자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5. 성시간 및 성령찬미미사

- ◆ 7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 ◆ 매월 성시간을 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6. 북가주 6개 한인 성당 청소년 하계 캠프 안내

- ◆ 날짜 :8월 7일 -9일 (2박 3일)
- ◆ 대상 : 중,고등학생 (2015년 9월 기준 7학년-12학년)
- ◆ 참가비 :\$170(T-셔츠+식사 5끼 포함)
- ◆ 장소 :Koinonia Camp Ground , Watsonville, CA
- ◆ 참가 인원 파악 및 준비를 위해 온라인 접수 신청 필수
camp2015.sjkoreancathloicsundayschool.org (산호세한국순교자 성당)
또는 SACPACK+HS FaceBook 확인

7.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서 작성자는 총 82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200)	\$36,695.00

8. 감사합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 3구역 보 조 : 최빅토리노 이다리아
- ◆ 다음주 점심봉사 : 사회복지부 보 조 : -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1,000)	\$6,0787.21

성전건립을 위한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지 난 주 목 주 기 도 봉 헌	총 누 계
1360단	233,444단

지구 & 교구소식

꼬미시움 회합 19일(일)- 1시 성당 엘리사벳 방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모임안내

- 모임 : 7월 19일(일) 미사후
- 리노 공소 : 19일(일) 오후 2시 반 출발 차량으로 봉사하실분
- 사목회 : 26일(일) 엘리사벳 방

주일 /한글학교

- 주일학교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 ◆ 문의:이시래 베아타(919)749-0632/장선영 스킨스타티카367-3363

전례 봉사	07월 12일	07월 19일	07월 26일	08월 2일
해 설	김은선 (제노피아)	김은영 (폴 리 나)	임상일 (프란치스코)	이혜련 (데 레 사)
1 독 서	장석자(요한보스코)	장수영 (스테파노)	안기창(프란치스코)	윤재경 (알베르토)
2 독 서	장선순 (글로리아)	허애경 (안 나)	최금주 (요안나)	윤은실 (비비아나)
복 사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마노)	윤성훈 (가브리엘) 송돈희(요 셉)	양경민 (안드레아) 류승교 (바오로)	김재열 (스테파노) 이대원 (베드로)
/기도/청소	9EG~10DW	9EG~10DW	9EG~10DW	1FE~2FO
헌금 위원	이나숙 정의주	송돈희 임상일	고공자 임그라시아	장석자 고원석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신세계 여행사</p> <p>80 Grand Ave. #202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7495</p>	<p>한국위성방송</p> <p>한국방송(MBC, MBC Everyone, 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 CBS Badoo) + 미국방송(Direc TV) "무료설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p> <p>배 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p> <p>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4</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p> <p>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p> <p>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부동산 · 용자</p> <p>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p> <p>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p> <p>파산법 전문 (, 사업법,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p> <p>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p> <p>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 Solutions 컴퓨터 수리</p> <p>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p> <p>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p> <p>~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 보아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p> <p>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p> <p>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p> <p>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승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아모스 7:12--15** 제 2 독서 **에페소서 1:3-14** 복 음 **마르코 6:7-13**



화답송

비장하여라! 길 떠나는 제자들

!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평화 속에서 안녕하신지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때문에 멀쩡한 가축을 땅에 파묻으며 걱정했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사스에서 에볼라를 거쳐 메르스까지 괴물 같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한편,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129년만의 가뭄으로 농심은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두가 제어할 수 없이 뻗어나간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자연의 경고라는 생각이 드니 두렵습니다. 그래도 교우분들이 이 강론을 읽으실 때쯤이면 가뭄도 해갈되고, 확산 일로에 있는 메르스도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따르면 아모스는 양과 무화과를 키우던 목자요 농민이었습니다.(아모 7,14) 아모스는 12지파들 간에 맺었던 동맹 정신과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소명을 받습니다.(아모 7,16) 아모스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배층이 행하던 온갖 악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아모스는 나라의 발전(풍요)이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 공평하게 모두가 잘 사는 것이고, 그 때에 하느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낙수효과’라는 달콤한 이설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실은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더디 가고, 덜 먹고, 덜 입어도 더불어 잘사는 길이야 말로 노예살이 하던 조상들을 해방과 자유의 길로 불러내신 하느님의 뜻 이라는 것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는 장면인데 몹시도 비장합니다. 먼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지팡이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옷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니 말입니다.(마르 6,8-11)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그리도 비장하게 파견 하셨는지는 오늘 복음의 앞과 뒷부분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고향 사람들로 부터 배척을 받았던 이야기나(마르 6,1-6),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헤로데 안티파스가 요한 세례자를 살해하였다는 이야기(마르 6,14-29)가 그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율법의 허구성(안식일과 정결례에 관한 논쟁들: 마르 3,1-6: 7,3-15 등) 낡은 질서를 타파(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들: 마태 5-7장 등)하셨으며,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적대자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천박한 세속의 논리를 직면하게 될 제자들을 파견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비장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회당 밖을 떠돌던 사람들, 가장자리의 사람들, 변방에서 떠돌던 또 다른 자신들에게 ‘선포’와 ‘기적’을 일으키도록 파견 됩니다. 제자들은 우여곡절(베드로의 배신, 토마의 불신앙 등)은 겪었으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옛 사람 아모스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나,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이리떼 같은 세상으로 파견하던 때나 지금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시대의 질곡도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일상의 안일함을 잠시 거두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연민과 공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가엾은 약자들의 피울음이 들리고 보입니다. 이제 그 울음과 아우성 속으로 아모스나 제자들이 파견 되었던 것처럼 걸어가야겠습니다

신기동 본당 김영식 요셉 신부

간
장
종
지

깊은 우물
가엾은 마음은
착한이 일수록
깊은 우물이네



유경환 클레멘스·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화가
